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고순제 전도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21:43-45 / 22:28-34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헌신과 나눔	봉 헌 / 홍현근 집사,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찬송 620 장 / 여기에 모인 우리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김훈태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19:1-18  
"너희는 거룩하라."

### 주는 완전합니다 / 마커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요즘 이리 부딪히고 저리 쓰러지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까. 기도는 해야 하겠는데  
어찌 기도할지 모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삼아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 완전하신 주님께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갑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안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5-6) 이런 욥의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 삶과  
다른 사람을 장악하려는 꿈을 이제 주님이 흠어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다스리시는 비전을 갈망하며 전진할 때,  
매일의 삶은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약한 나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 찬 주간의 기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믿음에 굳게 선 내일의 소망이 늘 있게 해 주십시오.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성령의 능력과 굳신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십시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코머서 14차 18절

"이것이 나의 찬양이다. 이 찬양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양이다. 이 찬양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 교회와사역

### 섬김의 교회 미래 3년: 2019년 8월 - 2022년 7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앞으로 3년간의 목회와 사역에 관한 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7번째 해는 안식년이었습니다. 설립 후 7번째 해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2021년 8월초부터 2022년 7월말까지는 섬김의 교회의 안식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8월초부터 2022년 1월말까지는 설립 후 6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섬김과 헌신, 즉 사역의 열매를 수확하는 6개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사역, 성도와 가정, 범사와 생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초부터 7월말까지는 이 모든 영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삶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 사역과 섬김으로 나누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한 안식의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2020년 7월말까지는 섬김의 교회의 사역과 각 지체들의 삶이 주 예수님 안에 더 견고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뿌리를 내리는 남은 다섯 번째 해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과 모든 삶에서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 섬김의 뿌리, 특히 예배의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섬김의 교회가 더 견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본받아, 즉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교회와 교우들이 더 견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성생활과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또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신앙성장과 교회생활을 도울 전임 교육사역자의 청빙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육 전임사역자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찬양팀을 조직하는 비전을 분담하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인도하는 '양육팀'이 만들어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많은 이가 사역 인도자로, 말씀/찬양 등의 사역 리더로 준비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가 섬깁시다. 이런 다양한 섬김들이 은혜롭고 능력있게 펼쳐지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당부합니다. 남은 다섯째 해, 2020년 7월말까지는 더 견고히 뿌리를 내리도록 사역합시다. 그리하여 여섯째 해는 더 건실히 성장하도록 사역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안식년의 전반기에는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꿈을 꾸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초부터 7월말까지는 치유/회복/나눔의 은혜를 공동체 안과 밖,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나누는 축복의 안식의 기간이 되도록 함께 달려갑시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헌신하시고 섬겨 주시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비전을 향해 '또 다시 하나님께 함께' 갑시다. - 김성배 목사 -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의 식탁**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끝까지 충성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섬김의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말씀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오늘은 정기제직회로 모입니다.(3/4 분기 결산)
3. 주일성경공부 우리의 영성 훈련입니다.  
요한복음의 7 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4.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김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시다
5.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7. Power Prayer 2019 하나님께 약속한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 10월의 사역일정 - 10.13 제직회 / 10.20 Oikos 모임

◆ 교우동정 - 김신실 집사 / 한국 가족방문

예배와 양육 / 교제와 나눔 / 치유와 회복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총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0/13	10/20	10/27	11/3
		고순제전도사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김훈태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0/18	10/25	11/1	11/8
		김훈태집사	정홍렬목사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10/13	10/20	10/27	11/3
		홍현근집사/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 여호수아 20:7-21:7

기업으로 받은 땅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산지를 갖기 원하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기다림의 땅, 수고와 희생의 산지인 헤브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갈렙과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도피성과 레위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제공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축복을 형제자매들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편견과 편중을 깨뜨리자. 그 받은 축복들을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전해야 한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 여호수아 21:43-45, 22:28-34

전면적인 정복전쟁은 중단되고,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은 모두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고 안식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축복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 여호수아 21:43-45, 22:28-34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세상이 생명과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선한 약속을 이루셨다. 이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엄연히 결단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의 전면적으로 정복전쟁에서 연전연승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의 민족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때문이다. 성경은 반복 설명하며 강조 되듯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약속하신 선한 약속이 이루어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전부 지키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과 축복이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축복하고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젊은이들도 그들의 가족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언덕에 함께 모여 요단강 가까이에 큰 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족들에게로 가자 요단 서편에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의분을 표출했다.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약속을 너무 빨리 잊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군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형제들을 언약을 이행하는 바른 축복의 길로 돌이키려 했다. 이는 오해였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 언덕에 쌓은 단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있는 단의 모형으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증거의 단이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들은 비록 요단강이 이들 사이를 통과 서로 돌로 나누어 놓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사실을 명백히 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다시 확인했다. 즉, 요단 동서 양쪽에 기업을 가진 지파 모두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선한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약속을 듣게 된다. 약속은 지키려고 맺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결단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성화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것 굳게 다짐해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금하기를 간구하도라”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October 13, 2019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10월 13일

5-40호

## 결실의 달

믿음성장 / 신앙생활 성숙 추구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노아 질수국  
표알기 힘든  
나은 자의 하나님